

韓服에 대한 態度를 중심으로 한  
社會心理學的 衣服研究

—서울의 成人女性을 중심으로—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Korean Clothing as  
Related to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延世大學校 姜 蕙 遠  
Prof. of Collè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Hewon Kahng

<목 차>

- |             |             |
|-------------|-------------|
| I. 서 론      | II. 결과 및 논의 |
| II.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in relation to 3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and in relation to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age, and education, and (2) to ascertain the extent to which Korean clothing was used and valued.

Clothing measures consisted of statements dealing with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Korean clothing, frequency of use of Korean clothing, and modesty and conformity-individuality measure. The measure of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consisted of items selected from the Inventory of Feminine Values and the Sex Role Ideology Scale.

Product-moment correlation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hich consisted of the responses of 700 adult Korean women to questionnaires administered by the researcher.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 1)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for both psychological and practical aspects were,
  - (1) related negatively to nontraditional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and education, and
  - (2) related positively to age, frequency of wearing Korean clothing, and modesty in clothing.
- 2)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for practical aspect was related negatively to age and education, whereas, the psychological aspect was negative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 3) Conformity-individuality in clothing was related positively to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and education.
- 4) Modesty in clothing was related negatively to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and education, conformity-individuality, and was related positively to age.
- 5) In 1945 most of the subjects over 51-year-old wore Korean clothing always or most of time, whereas, about 1/3 of them wore the same in 1976. Only 4% of the total participants regardless of their ages wore Korean clothing for everyday life in 1976.
- 6) In general, highly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were found on psychological aspect, whereas, highly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were found on practical aspect.

## I. 서론

한나라의 固有衣裳은 그나라의 文化를 상징한다. 우리 女性들의 韓服을 입은 모습은 예로부터 우리 국민이외에도 우리나라를 찾아온 外國人에게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平常服으로서는 한복이 우리의 生活에서 점차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衣生活에 나타나는 變化는 그 時代의 社會여건의 變化를 反映한다. 우리의 한복착용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 및 女性의 활동범위의 擴張에 관계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文化圈내에서 사는 우리들 사이에

도 한복 着用度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個個人이 처해있는 社會안에서의 위치, 가치관 및 성격등의 內的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를 착수하게 된 동기는 왜 우리의 한복이 실생활에서 사라져가고 있는가? 한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는가? 한복의 위치는 어떠한가? 기능적인 개량한복의 구상이 필요할까? 한복과 관련된 중요한 變因들은 무엇일까? 등에 대한 의문에서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복에 관한 연구로는 황춘섭과 Kahng<sup>1)</sup>을 들 수 있다.

박경자<sup>2)</sup>의 저서에서 상세히 소개된 황춘섭의 현대인의 한복에 대한 의식 및 착용에

대한 연구에서 여자들의 한복착용의 가장 주된 이유는 고유의 옷, 품위, 정서가 담김 등이었고 반면 활동의 불편이 한복착용을 안하는 주된 이유였으며 앞으로의 착용에 대한 의견은 주로 양복에 한복을 가끔 입겠다고 보고되었다.

Kahng의 한국 女大生의 의복행동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복이 아름답고 정숙하다는데 긍정적이었고 손질의 까다로움, 활동성, 안락감 등에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이들중에서 좀 더 傳統的인 女性의 役割에 대한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 韓服을 더 아름답고 더 貞淑하다고 하였다.

性役割은 어린이가 어릴때부터 그의 性에 따라 다르게 行動하도록 학습한 社會的 役割의 하나의 특정한 역할이라고 Sarbin<sup>3)</sup>은 定義하였다. 한편 Angrist<sup>4)</sup>는 性役割의 主된 意味를 3 관점에서 보았다. 즉 性役割을 位置에서 볼때는 보편적으로 조직된 集團內에서 性別에 依한 노동의 區分이 대개는 介入되고, 行動에서 볼때는 배경과 관계없이 선호 능력 성격으로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關係에 있어서는 多樣的 社會적 背景 안에서 軸점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 社會의 性役割의 基準은 固定된 것이 아니고 性別 및 依存을 둘러싼 규범안에 變化하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sup>5)</sup> 美國의 가정 主婦들은 主婦단으로서의 役割을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가정에 국한된 전통적인 女性의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기사<sup>6)</sup>가 보도되었다.

현대사회 구조와 남녀 역할을 논함에 있어 박영신<sup>7)</sup>은 한국의 여성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어서 여성의 총무대는 가정속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女性의 충분한 자기 구현과 발달을 목표로 할때 한국의 男·女

역할의 근본적인 변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사회의 가치관 및 사고유형의 變化가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女性의 役割 變化와 衣服과의 關係에 對하여 Ryan<sup>8)</sup>은 “특정한 사회안의 衣服의 형태의 차이는 그 사회 구성원의 자아개념 및 社會적 역할의 차이를 암시하며 한 사회안의 衣服의 형태의 變化 등은 사회구성안의 역할 變化를 나타낸다”는 Bush 및 London의 進술을 인용하면서, 주부의 역할이 가정 안에 국한되었던 시기의 housedress의 主된 착용과 外部로 주부의 역할이 확장된 오늘의 여러종류의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한 衣服 착용을 비교하였다. 또한 Horn<sup>9)</sup>은 女性의 활동이 집안에 국한되었을 때의 女子의 활동을 제한하던 옷과 해방된 오늘의 남자 의복의 특성을 가진 활동적인 의복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女性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獨立變因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 全般的인 衣服에 대한 貞淑性 및 同調性 一個性을 韓服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衣服變因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의 문제가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目的은 서울 거주 成人女性의 韓服에 대한 態度를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衣服變因 및 社會心理變因을 규명하며 韓服着用度의 時代的 變化 및 改良韓服의 展望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文化的 측면에서는 韓國人의 傳統衣裳에 부여하는 價値를 評價할 수 있고 衣服行動분야에서는 時代的 變化, 성역할 및 연령과 의복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問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복에 대한 태도 및 착용도를 규명한다.

2. 개량한복의 전망을 타진한다.
3. 한복에 대한 태도 및 착용도와 아래의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 1) 衣服의 貞淑性 및 同調性—個性
  - 2) 女性의 役割에 대한 태도, 연령 및 교육정도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의 표본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일부 여성을 표집하였다는 점과 측정도구는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 II. 방법 및 절차

###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調査研究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成人女性을 대상으로 1976년 8.9.12월에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그 중 불완전한 것, 성의없는 것을 제외하였고 이외에 연령층의 타당성 및 편중을 감안하여 20대의 자료 100부를 제외한 전체 700명의 자료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표집대상의 구성은 가정주부 385명, 학생 181명, 직업여성 124명 기타 10명이었으며, 그 연령 및 교육수준의 분포는 <Table 1>과 같으며 20代는 결혼연령을 고려하여 전후반 두층으로 구분하였다.

### 2. 도구선정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일반적 의부 행동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선택하였고 한복에 대한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ge and Education (unit=person)

Age	Educational Level					Tota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1~25	—	2	2	33	210	247
26~30	—	2	3	27	50	82
31~40	3	13	22	65	86	189
41~50	3	13	29	52	34	131
51 and over	4	11	11	14	11	51
	10	41	67	191	391	700

모든 문항은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설문지는 예비검사를 거쳐 보완 완성되었다.

#### 1) 한복검사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에 대한 肯定的 및 否定的의 태도를 心理的 및 實際的 측면에서 間接的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한복을 입는 이유 및 입지 않는 이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설문문을 사용하였다. 全體問項數는 肯定的 태도에 심리면 10문항, 실제면 5문항, 否

定的 태도에는 심리면 5문항, 실제면 1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긍정 또는 높은 부정적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韓服 着用: 현재에서 과거 8.15당시까지의 특정시기의 한복의 착용도를 측정하였다.

改良韓服: 활동복으로서의 개량한복의 가능성, 필요성, 착용전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 2) 全盤的 衣服行動 검사

貞淑性 및 同調性—個性에 대하여 자기 5

단계 評定法검사 10문항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貞淑性 : 의복에 있어서의 身體의 과도한 노출 즉 옷이 많이 파지거나 몸에 밀착된 것을 입을 때 또는 보았을 때의 느낌에 관하여 김광경<sup>10)</sup>이 사용한 것을 보완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衣服에 관한 정숙성을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同調性—個性 : 同調性은 의복을 집단의 규범에 따라 착용하는 것을, 個性은 반대로 자신을 집단의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혜원<sup>11)</sup>이 사용한 것을 선택하였다.

3) 女性의 役割에 대한 態度검사

여성의 역할에 대한 傳統的—開放의 태도를 측정하며 Inventory of Feminine Values<sup>12)</sup> 및 Sex Role Ideology Scale<sup>4)</sup>에서 Kahng이 선정 수정한 12문항이다. 내용은 직업과 어머니 미혼여성의 목표로서의 결혼, 남편과의 관계 및 부부의 가정내의

일분담 한계에 대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연령 및 교육 정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 III. 결과 및 논의

자료분석 결과를 1) 變因의 분포경향 2) 衣服變因의 相互관계 3) 衣服變因과 獨立變因과의 관계 4) 獨立變因의 相互관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各變因의 분포경향

1) 한복에 대한 태도

한복을 입는 이유와 입지않는 이유로서 문항별로 한복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4>와 같으며 전체 문항의 합계에 의한 분포경향은 <Table 2>와 같다.

한복에 대한 肯定的 태도 : 한복을 입는

<Table 2> Distribution by Total Sco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Score Range	Positive Attitude		Negative Attitude	
	Psychological Aspect %	Practical Aspect %	Psychological Aspect %	Practical Aspect %
46~50	3	—	—	—
41~45	14	1	—	5
36~40	52	6	2	33
31~35	22	12	8	41
26~30	8	32	31	15
21~25	1	35	49	4
16~20	—	14	10	1
11~15	—	—	—	1
6~10	—	—	—	—

이유로써 心理的 측면은 1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肯定的이었다. 그중 표집대상 전체의 80%이상의 肯定的 태도를 보인 것은 고전적임, 우아함, 전통성, 아름다움 등이

였고 70%이상의 肯定的 태도를 보인 것은 정숙함, 금지, 여성다움, 젊잖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實際的 측면은 유행의 변화가 적다, 따뜻하다에 한하여 과반수는 못되

〈Table 3〉 Distribution by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n=700)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Strongly Agree %	Agree %	Neutral %	Disagree %	Strongly Disagree %
<b>PSYCHOLOGICAL ASPECT:</b>					
Classic	10	77	8	4	1
Graceful	17	66	10	6	1
Traditional	14	70	9	6	1
Beautiful	14	68	11	6	1
Modest	17	61	9	12	1
Pride	14	61	17	7	1
Feminine	9	66	14	10	1
Dignified	10	62	14	13	1
Conceals figure defects	7	45	20	25	3
Becoming	5	29	30	34	2
<b>PRACTICAL ASPECT:</b>					
Little fashion change over the years	4	43	21	29	3
Warm	4	34	22	35	5
Inexpensive	1	11	22	56	10
Comfortable	2	14	10	56	18
Economic	1	9	16	60	14

〈Table 4〉 Distribution by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n=700)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Strongly Agree %	Agree %	Neutral %	Disagree %	Strongly Disagree %
<b>PSYCHOLOGICAL ASPECT:</b>					
Unsuitable to current life style	5	48	17	29	1
Not modern	2	30	17	47	4
Not individualistic	1	16	13	60	10
Conceals good figure	1	18	14	61	6
Not beautiful	—	2	4	67	27
<b>PRACTICAL ASPECT:</b>					
Restrictive	21	72	2	4	1
Cumbersome	18	73	4	4	1
Too warm	13	64	10	11	2
Difficult to care for	8	63	12	15	2
Not practical	7	64	11	16	2
Restrictive of chest	6	53	13	25	3
No place to wear	6	51	11	29	3
Not versatile	4	48	15	29	4
Unavailability of ready-to-wear	2	20	14	56	8
Expensive	1	16	19	59	5

나 상당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복에 대한 否定的 태도 :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로서 心理的인 측면은 과반수 이상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한복이 생활 양식과 맞지않는다는 점 뿐이다.

그러나 實際的 측면은 과반수 이상의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8문항이었으며 그 중 전체의 90%이상이 否定的 태도를 보인 것은 활동의 불편 거주장스러움 등이며 그 다음으로 否定的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들은 여름에 덥다. 손질의 어려움, 실질적이 못되는 점 등이었다. 반면 기성복이 손쉽게 구할 수 없다, 값이 비싸다는 점에는 낮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2) 韓服着用

韓服着用度の 變化를 알기 위하여 過去와 現在의 比較를 8.15 해방때 한복을 착용할 수 있었던 연령층(51세 以上)의 완전한 응답자(41명)만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한복을 항상 또는 주로 착용한 사람들이 1945년에는 거의 전부, 1970년까지는 半數, 1976년에는 약 1/3이고 대다수가 주로 한복 및 양복을 같은 정도로 입거나 洋服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표집대상의 1976년도의 한복 착용상태는 <Table 6>과 같이 4%가 한복에 의존하였고 75%가 주로 양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requency Distribution of Use of Korean Clothing in the Past and at Present for Subjects over 51-Year-Old

(n=41  
unit=person)

Frequency Level Year	Always	Most of the Time	About Half of the Time	Seldom	Never
1945	22	14	4	1	—
1960	15	14	8	4	—
1965	7	20	11	2	1
1970	2	19	12	5	3
1976	2	9	16	10	4

<Table 6> Distribution by Frequency of Wearing Korean Clothing at the Present Time

(n=700)

Always %	Most of the Time %	About Half of the Time %	Sometimes %	Never %
1	3	12	49	26

3) 改良韓服

한복을 改良한다면 어떤 부분이 개량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대로 둔다는 사람이 저고리 55%, 치마 67%였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은 저고리의 고름, 소매 길이, 소매통, 동정, 치마길이 또는 통치마를 바꿀것 등으로 나타났다.

改良韓服의 必要性은 필요하다 27%, 필요없다 46%였고, 앞으로 개량한복이 나온다면 평상복으로 입겠다 15%, 안 입겠다 44%였다.

4) 一般의 衣服行動

가능한 점수 분포는 10~50점이었으나 실제로는 26~40점 사이에 同調性—個性 86%

貞淑性 8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41~45점이 同調性—個性 4%, 貞淑性 11%였으며 16~25점이 同調性—個性 5%, 貞淑性 12%였다.

#### 5) 女性의 役割에 대한 態度

가능한 점수는 12~60점이었으나 실제로는 31~45점 사이를 85%가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40~45점 8%, 21~30점 7%였다.

## 2. 衣服變因의 相互關係

衣服變因의 相互關係는 <Table 7>과 같이 높은 상관계수는 아니었으나 한복에 대한 否定的인 태도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衣服變因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

였다.

한복에 대한 肯定的인 태도는 심리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사이에 正的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두 측면에 肯定的인 태도가 높을수록 조사당시 한복을 좀 더 많이 착용하였고 전반적인 의복의 貞淑性을 좀 더 중요시하였다. 이외에 실제적면에서 한복에 대한 肯定的인 태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同調性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의복의 貞淑性을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의 의복의 同調性도 중요시하였다.

## 3. 獨立變因과 衣服變因과의 關係

女性의 役割에 대한 전통적—개방적 태도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Clothing Variables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Use of Korean Clothing r	Conformity-Individuality r
	Psych. Aspect r	Practical Aspect r	Psych. Aspect r	Practical Aspect r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Practical aspect	.26**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Psych. aspect	-.04	.05				
Practical aspect	.08	-.04	-.06			
Use of Korean clothing	.12**	.13**	.07	.08		
Conformity-individuality	-.07	-.12**	-.04	.01	.05	
Modesty	.27**	.10*	.02	.02	.12**	-.24**

\* Significant at the .05 level

\*\* Significant at the .01 level

연령 및 교육경도와 衣服變因과의 연관성을 상관관계로써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이 높은 상관계수는 아니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특정변인간에는 보였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전통적 또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심리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 한복에 대한 肯定的인 態度가 높았고, 한복에 대한 否定的인 태도의 심리면에서 높은 否定을 보였으며, 조사 당시 한복 착용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전반적인 의복에 있어 同調性 및 貞淑性을 더 重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Clothing Variables and Attitudes toward Women' Role, Age and Education

Clothing Variables	Attitudes toward Women's Role r	Age r	Education r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Psychological aspect	-.19**	.10*	-.10*
Practical aspect	-.18**	.17**	-.15**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clothing:			
Psychological aspect	-.10*	.05	-.07
Practical aspect	.04	-.17**	.16**
Use of Korean clothing	-.11*	.16**	-.16**
Conformity-individuality	.19**	-.08	.16**
Modesty	-.30**	.41**	-.33**

\* Significant at the .05 level

\*\* Significant at the .01 level

要시하였다.

연령층과의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한복에 대한 肯定的 태도가 심리적 및 실제적 면에서 높으며 한복에 대한 否定的 태도도 실제면에서 높다. 높은 연령층일수록 조사 당시 한복을 많이 着用하며 의복의 貞淑性을 중요시하였다.

교육정도와의 관계는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한복에 대한 肯定的인 태도가 심리적 및 실제적 면에서 높으며, 한복에 대한 否定的 태도가 실제면에서 낮고 한복을 좀 더 많이 착용하였다. 이들은 또한 同調性 및 貞淑性을 좀 더 중요시하였다.

#### 4. 獨立變因 相互間的 關係

女性の 役割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의미 있는 否的인 관계 ( $r = -.41^{**}$ )를, 교육정도와는 正的인 관계 ( $r = .51^{**}$ )를 보였으며 연령과 교육정도는 否的인 관계 ( $r = -.49^{**}$ )를 보여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연령이 낮고 교육정도는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정도는 낮았다.

#### 〈논 의〉

韓服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韓服에 대한 態度는 연령, 교육정도, 女性의 役割의 態度 등의 個人差와는 관계없이 韓服의 傳統性 및 審美性에 대하여는 全般的으로 지극히 긍정적이어서 現在 대다수가 洋服을 着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傳統衣裳에 대하여 心理面에서 높은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황춘섭 및 Kahng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한복의 實際面 특히 活動性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否定的인 태도를 보여 오늘날 洋服의 높은 의존도는 現代社會에서 女性이 요구되는 活動에 대한 적합성 때문이고 한복 자체가 싫어져서 입지않는 것이 아님을 表明하여 준다. 또한 韓服着用에서 洋服着用으로의 變化는 衣生活이 社會의 次要條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韓服은 우리 文化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계속 존재할 것이며 특히 韓國의 人 美, 傳統性이 중요시되는 특별한 경우,

다시말하면 韓國을 대표하는 정장, 예복, 축제服으로서 實用面을 떠나서 계속 着用될 것으로 생각된다.

改良韓服(기능적인 한복)의 必要性을 타진하여 본 결과 부분적인 변형을 원하는 사람이 다소 있을뿐 改良韓服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어 본 연구 결과로서만 본다면 改良韓服의 개발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韓服에 對한 태도 및 韓服着用과 다른 衣服變因과의 關係를 보면 貞淑性 및 同調性—個性과 의미있는 關係를 보였다. 이는 한복의 形態가 몸의 線을 나타내는 것 보다는 은폐하는 옷이라는 점 및 한복은 옷감, 색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형태는 같은 것을 생각할 때 한복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인 態度를 가진 사람, 한복을 좀더 많이 着用하는 사람이 衣服全般에 있어도 貞淑함을 重要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보다는 남과 비슷한 것을 중요시한다는 結果는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세째로, 韓服과 獨立變因과의 關係는 의미있는 關係를 보여 한복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態度를 가진 사람 및 한복을 좀더 자주 착용하는 사람은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좀더 傳統的인 態度를 지니고 연령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았다. 이는 性役割에 대한 태도, 연령, 교육정도 등이 한복과 關係가 있는 變因임을 시사하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個人的 特性이 衣服行動에 反映됨을 알 수 있다.

네째로, 貞淑性和 연령과의 關係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아마도 젊은층들은 身體의 어느정도의 노출, 몸이 옷에 꼭 끼는 것 등을 貞淑하지 못한 예의에 벗어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貞淑性에 對한 개념의 變化는 아마도 신축성있는 편직

(knits)의 보급 및 청바지 차림의 유행 등의 영향인 것으로도 생각되며 貞淑性의 개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한복착용도의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변화에 따른 女性的 役割의 變化, 다시 말하면 점차 확장되어 가고있는 女性的 生活환경 및 태도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오늘날 韓國女性은 平常服으로서 活動的인 洋服과 특수복으로써 傳統美를 지닌 韓服을 같이 着用하므로써 보다 다양한 衣服의 必要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役割의 變化 및 役割과 衣服과의 關係에 對한 문헌조사 結果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1. Kahng, Hewon.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0.
2. 박경자, 임순영, 「한국의상구성」서울:수학사 1976.
3. Sarbin, Theodore R. "Role Theory." In Lindzey, Garner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1954, 223-258.
4. Angrist, Shirley S. "Role Conception as a Predictor of Adult Female Roles." *Journal of Social Issues*. 1969, 25, 215-232.
5. Albrecht, Ruth E. and Bock, E.W. *Encounter: Love, Marriage, and Family*. Boston: Holbrook Press Inc, 1972, p. 49.
6. "The New Housewife Blues." *Time*, March 14, 1977, 36-41.
7.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서울: 일지사, 1978, p. 116.
8. Ryan, Mar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6, 71-72.

9.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201-202.
10.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3.
11.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농촌계11집, 1974.
12. Steinmann, A. and Fox, D. "Male-Female Perceptions of the Female Rol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sychology*, 1966, 64, 265-276.